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The Household 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on the Expanding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of Homemakers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 蔡玉姬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Prof. : Ock-Hi, Chae

본 연구는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1일 평균 6시간정도로서 80년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변수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족수이다.

둘째,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은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첫자녀나이, 월 총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하위영역인 가족성원간의 분담화는 주부의 취업여부, 첫자녀나이, 가족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계통화에서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하위영역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변수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노동 간소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지속년수, 주거형태, 가족수, 월 총소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간소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 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월 총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은 간소화, 사회화 및 분담화로서 가사노동시간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통화와 기계화는 가사노동 시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가사노동은 개인과 가족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노동으로서 인간의 성장발달과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이다. 이는 사회구조와 가정생활방식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과 수행은 지속적으로 대부분 주부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혹자는 가사노동을 여자가 하는 집안 일 또는 살림살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 살림 안에는 생명을 낳는

출산자, 기르는 양육자, 감싸는 보호자, 가르치는 교육자, 식구를 질긴 동아리로 만드는 매개자, 온가족의 위안자등으로 포괄시키고 있다. 특히 가정생활주기의 확대기에 있는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노동까지도 다양성과 전체성, 세심성을 요구한다. 즉 끊임없는 가족원의 생리적,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요구사항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 욕구들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항상 대령하고 있어야 하는 주부는 인간의 삶 전 영역에 관계되는 노동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부가 투자하는 가사노동의 총 시간수는 한 사회의 생산노동의 총 시간수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가사노동은 사회의 각종 직업에서 수행되는 노동량, 노동시간, 반복성, 긴장과 노고면에서 뒤지지 않는 노동형태임이 분명한데도 과학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대다수의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만족하지 못하며, 특히 가사노동시간 감소의 욕구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주부들은 가사노동 수행시 시간감소를 위해서 가족원간의 노동분담이나, 일을 동시에 몇가지씩 중복해서 행하려는 계통적 수행방식,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등 수행표준의 조정으로 일을 간소화시키려는 등의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사노동 수행방식등은 주부가 처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수행하게 되는 확대기 가정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전략을 조사하여 보므로써 가사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II. 관련연구 고찰

1. 확대기 가정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한쌍의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형성된 가정이 자녀의 출산, 성장과 함께 발전 확대되며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함으로써 축소되고 부부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이 전형적인 핵가족의 가정생활 주기이다. 가정생활주기를 여러측면에서 구분지을 수 있으나 장명옥

(1976)은 가족의 발전적 측면에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가정형성기, 확대기, 축소기이다. 최정화(1990)등은 한국 농촌가족의 가정생활주기 모형을 평균연령으로 형성기(21~23세), 확장기(23~32세), 완전확장기(32~47세), 수축기(47~60세), 완전수축기(60~63세), 해체기(63~75세)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를 토대로 하여 가정확대기가 자녀출산후부터 완전성장까지임을 감안하여 첫자녀 출산후부터 주부연령이 50세 미만인 가정의 단계를 가정확대기로 규정하였다.

가정확대기는 가정생활주기 단계중 가장 긴 기간이며 자녀출산후부터 양육 및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 물리적, 정신적 자원의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가사노동시간도 급격히 증가한다. Grooss등(1963)은 이 시기를 주부의 책임중압시기라고 규정하고 이 단계의 주부는 시간적,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을 가정생활주기단계에서 분석한 Nickell와 Dorsey(1976)은 가정형성기에 주당 42시간의 가사노동이 확대기에 65시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점차 57, 53, 50시간으로 감소하여 축소기에는 다시 43시간으로 감소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정생활주기 단계에 따라서 가사노동의 양 및 시간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의숙(1981)은 가사노동태도에서 주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현저한데 이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사노동의 종류와 양, 가족간의 관계, 중년기 이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Sanik(1981)은 자녀수가 많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되는 반면 여가 및 취업률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정수(1984)도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6~11세일 때 가사노동시간이 급증하며 10대 연령에 들어섬에 따라 다시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청소, 조리, 설거지,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주부에게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 주기단계를 통해서 가정확대기가 주부의 책임중압시대임을 알 수 있다.

2.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임정빈(1990), 한경미(1990)에 의하면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7.6~7.8시간, 취업주부는 5.4~5.7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자녀의 연령등 주부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정수(1984)는 시간사용에 따라 가족의 욕구충족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사노동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관리 전략의 사용이 요구된다. 문숙재, 채옥희(1986 : 101)는 가사노동을 주어진 시간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기술화, 계통화, 분담화, 사회화 및 설비의 기능화로 보았다.

Strober와 Weinberg(1980 : 338-347)은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가설적 전략 5가지를 제시하였다.

- ① 가계생산의 양과 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재기기로 대체하는 방법
- ② 가계생산의 양과 질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인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방법
- ③ 가계생산시 자신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가계생산의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는 방법
- ④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에 분배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 ⑤ 여가 및 수면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승미·이기영(1990)은 가족원간의 분담, 가정기기 및 상품의 대체, 가사노동수행표준의 조정, 생활시간 분배의 조정이라고 하였다. 조성은(1991)은 시간관리 전략을 가족원간의 분담, 가사노동기계화, 가사노동 서어비스의 사회화,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효율화, 여가및 수면시간 분배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가사노동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증진시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절약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수행시 채택되는 방법을 5가지로 규정하였다. 즉 가사노동의 가족성원간 분담화, 가사노동 수

행을 위한 계통화, 가사노동 대체를 위한 사회화, 가사노동 기계화 및 가사노동 방식이나 생산물의 간소화이다.

1) 가사노동의 가족 성원간의 분담화

가사노동의 분담은 아직 전통적인 선을 따르고 있어 많은 부분의 가사를 여성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이 가사참여에 주는 효과는 가사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Nickoles와 Fox(1983)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자신의 취업시간과 막내자녀의 연령에 영향을 받으며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Suzanne Model(1984)는 배우자간의 소득차이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정수(1984)는 주부가 전 가족원 가사노동시간의 약 76%를 수행하고 남편은 15% 자녀는 9%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2) 가사노동 계통화

가사노동 계통화는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의 순서를 고려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은 평균적으로 세가지 과업이 한꺼번에 행해지는 중복수행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계통화는 하루 혹은 그보다 긴 기간의 계획에 따라서 가정활동의 순서를 점검하기도 하며 주부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활동의 순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Walker와 Woods(1976) 연구에 의하면 16%의 주부들만이 스케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어 최상층은 27%를 최하층은 8%만이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사노동 간소화

주부가 가사노동 수행표준을 유연하게 설정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높이 평가되고 관례화된 표준을 엄격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주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간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Schultz와 2인(1989)도 청결에 대한 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정해진 스케줄을 엄격하게 따르는 전략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구혜령(1990)은 우리나라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표준낮추기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사회화는 상품의 대체와 편의품, 서어비스 이용만으로 한정시켰다. 정지영(1990)도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서비스 사회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기영(1987), 김영숙·심미영(1991)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 사회화가 높게 나타났다. Bellant와 Foster(1984)는 취업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 경향이 많아 취업 주부의 시장용역 이용이 많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정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사회화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다.

5) 가사노동 기계화

가사노동 기계화는 가사노동에 이용되는 모든 기구의 도움으로 신체적인 손상을 막고 가사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신경주(1986)는 일반가정에 70% 이상 소유율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은 냉장고, 다리미, 전기밥, 세탁기등이며 이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유율이 높다고 하였다. Caln(1984)는 기술적 변화가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킨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하였으나 가정기구의 이용가능성은 정형화된 일의 할당을 더욱 강화하고 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의 양을 감소시킨다.

일련의 연구(Strober & Weinberg, 1980; Reily, 1982; 이용학, 1985)에 따르면 주부의 취업여부는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시간절약형 내구재를 더 많이 구입,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III.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가정확대기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차이가 있는가?

3) 가사노동시간에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척도는 Strober와 Weinberg(1983), 조성은(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총 29문항, 5개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3개영역에서는 “정말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만들었으며 기계화와 상품화는 매일 이용 5점에서 이용안함 1점까지 5점리커트 척도로 만들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rho=0.63$ 이다. 자료분석은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과 관련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계산하였으며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알기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GLM분석(General Linear Models Procedure)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 단계에서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가정확대기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파악하고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50세미만의 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1994년 6월 20일부터 6월 31일까지 총 500명의 주부를 자료수집하였으나 불실기재된것을 제외한 369부만을 자료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결과 및 해석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가정확대기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족원수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적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69)

변 수	구 분	N	%
주부연령	35세미만	63	17.1
	35-39세	114	30.9
	40-45세	119	32.2
	46-49세	73	19.8
주부교육수준	중졸이하	105	28.5
	고 졸	185	50.1
	대졸이상	79	21.4
주부직업여부	있 다	113	29.3
	없 다	261	70.7
자녀수	1-2명	187	50.7
	3명	111	30.1
	4명이상	71	19.2
막내자녀나이	0- 5세	67	18.2
	6-12세	136	36.8
	13-18세	145	39.3
	19세이상	21	5.7
첫자녀나이	0- 5세	15	4.1
	6-12세	115	34.1
	13-18세	98	26.6
	19세이상	141	38.2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8	2.2
	6-12년	105	28.4
	13-18년	91	24.7
	19년이상	155	44.7
주거형태	단독주택	177	48.0
	아파트	192	55.0
가족수	3인	36	9.8
	4인	141	38.2
	5인	119	30.3
	6인이상	80	21.7
월소득	100만원미만	127	34.4
	101-150만원	128	34.7
	150만원이상	114	30.9

차이를 보인 변인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유의적인 변수로서 취업주부는 평균 5시간 15분, 비취업주부는 6시간정도로써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는 평일보다 휴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어지는데 대하여 취업주부는 평일보다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취업주부는

평일에 달성하지 못한 가사노동을 휴일에 보충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되며 가사노동 속에는 주부가 반드시 담당해야할 일이 있음을 입증한다.

가족수는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3명, 4~6명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인이하의 집단에서는 평일보다는 휴일로 갈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나 4명이상의 가족집단에서는 평일보다 휴일에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6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변수는 주부의 취업과 가족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이나 가족원수는 가사노동시간의 증감을 규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

총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첫자녀의 나이, 총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중졸이하의 평균은 2.51 고졸이 2.60 대졸이상이 2.75점으로 주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시간관리 전략의 사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과 취업으로 처리한 결과 취업주부가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승미(1989), 조성은(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이 취업주부의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총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첫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첫자녀의 나이가 0~5세인 경우이며 가장 높고 다음이 19세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첫자녀의 나이가 6~18세인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동기에 있는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호응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총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 시간

표 2. 인구·사회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N=369)

변인	구분	표본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전 체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주부 연령	-34세	63	355		A	358		A	347		A	353		A
	35-39세	114	344	1.94	A	345	0.89	A	330	1.40	A	339	1.31	A
	40-44세	101	349		A	337		A	330		A	338		A
	45-49세	91	364		A	359		A	371		A	365		A
교육	중 졸	105	369		A	351		A	348		A	356		A
	고 졸	185	355	0.29	BA	351	0.01	A	349	0.57	A	351	0.23	A
	대 졸	79	323		B	339		A	323		A	328		A
직업	없 음	261	376		A	363		A	345		A	361		A
	있 음	108	295	*** 19.0	B	312	*** 7.73	B	339	0.00	A	315	** 6.58	B
자녀 수	2명 이하	187	334		A	338		A	328		A	333		A
	3명	111	366	0.29	A	356	0.13	A	357	0.81	A	360	0.28	A
	4명 이상	71	378		A	362		A	361		A	367		A
막내 나이	0-5세	67	345		A	351		A	342		A	346		A
	6-12세	136	354	1.56	A	356	1.67	A	340	1.41	A	350	1.73	A
	13-18세	145	356		A	342		A	350		A	349		A
	19세이상	21	337		A	333		A	322		A	331		A
첫 자녀 나이	0-5세	15	292		B	340		A	317		A	316		A
	6-12세	115	340	0.33	BA	342	0.28	A	340	0.59	A	341	0.21	A
	13-18세	98	351		BA	349		A	323		A	341		A
	19세이상	141	369		A	354		A	362		A	361		A
결혼 지속 년수	5년 이하	8	262		B	303		A	310		A	292		A
	6-12년	105	333	1.61	BA	344	0.58	A	337	0.15	A	338	0.68	A
	13-18년	91	344		BA	340		A	325		A	336		A
	19년 이상	165	373		A	357		A	358		A	363		A
주거 형태	단독주택	177	360		A	354		A	353			355		A
	다세대	192	345	0.46	A	343	0.15	A	334	1.11		341	0.61	A
가족 인원	3인 이하	36	270		B	275		B	287		B	277		B
	4인	141	346	*** 3.96	A	344	** 3.24	A	337	2.00	BA	343	** 3.57	A
	5인	112	371		A	361		A	361		A	364		A
	6인 이상	80	373		A	369		A	353		A	365		A
소득 액	-100만원	127	363		A	356		A	350		A	356		A
	101-150만원	128	356	0.65	A	345	0.11	A	341	0.01	A	347	0.18	A
	150만원이상	114	335		A	343		A	338		A	339		A

DT : Duncan's Grouping 결과

* : 유의수준 $\alpha=0.1$,

** : 유의수준 $\alpha=0.05$,

*** : 유의수준 $\alpha=0.01$

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만원이하가 2.54, 100만원이상에서 150만원집단이 2.58이며 150만원이상의 집단이 2.71로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인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사노동의 기계화등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각 하위영역별 결과이다.

1) 가족성원간의 분담화

가족원간의 분담화는 주부의 취업여부, 첫자녀의

표 3. 인구·사회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N=369)

변인	구 분	표본	분 담 화			계 통 화			간 소 화			사 회 화			기 계 화			전 략 전 체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평균	F	DT
주부 연령	-34세	63	2.18		C	4.04		A	2.59		A	1.84		BA	2.41		A	2.61		BA
	35-39세	114	2.26	0.51	C	4.01	0.14	A	2.45	0.14	A	1.78	0.09	B	2.22	2.02	BA	2.54	0.80	B
	40-44세	101	2.67		B	4.06		A	2.16		B	1.83		BA	2.19		B	2.58		B
	45-49세	91	2.93		A	4.09		A	2.14		B	1.93		A	2.43		A	2.70		A
교육	중 졸	105	2.69		A	3.96		A	2.10	**	B	1.73	***	B	2.06	***	C	2.51	***	C
	고 졸	185	2.45	1.54	B	4.09	2.22	A	2.28	3.49	B	1.84	11.6	B	2.33	9.42	B	2.60	17.8	B
	대 졸	79	2.47		B	4.08		A	2.69		A	1.99		A	2.54		A	2.75		A
직업	없 음	261	2.44		B	4.04		A	2.22		B	1.82		A	2.34		A	2.57		B
	있 음	108	2.73	***	A	4.07	0.28	A	2.55	11.5	A	1.89	1.69	A	2.19	2.94	A	2.69	***	A
자녀 수	2명 이하	187	2.38		B	4.03		A	2.47		A	1.86		A	2.36		A	2.62		A
	3명	111	2.45	1.76	B	4.05	0.26	A	2.24	0.74	B	1.82	1.04	A	2.27	1.80	A	2.56	0.95	A
	4명 이상	71	3.01		A	4.10		A	2.03		C	1.83		A	2.17		A	2.63		A
막내 나이	0-5세	67	2.25		B	3.99		A	2.62		A	1.88		B	2.35		BA	2.62		B
	6-12세	136	2.27	1.25	B	4.07	0.90	A	2.35	0.62	BA	1.76	1.87	B	2.29	0.82	BA	2.55	0.40	B
	13-18세	145	2.86		A	4.04		A	2.15		B	1.86		B	2.25		B	2.63		B
	19세이상	21	2.72		A	4.05		A	2.36		BA	2.14		A	2.56		A	2.79		A
첫 자녀 나이	0-5세	15	2.56		B	4.13		A	2.84		A	1.85	*	A	2.30		A	2.73		A
	6-12세	115	2.17	3.09	C	4.03	0.74	A	2.52	0.75	BA	1.82	2.51	A	2.40	0.58	A	2.59	3.88	BC
	13-18세	98	2.31		CB	4.02		A	2.27		BC	1.76		A	2.14		A	2.50		C
	19세이상	141	2.95		A	4.08		A	2.13		C	1.92		A	2.33		A	2.68		BA
결혼 지속 년수	5년 이하	8	2.37		B	3.95		A	3.00		A	1.77		A	2.22		A	2.66		A
	6-12년	105	2.19	1.11	B	4.04	0.62	A	2.56	2.69	B	1.84	1.16	A	2.43	0.58	A	2.61	1.44	A
	13-18년	91	2.27		B	4.01		A	2.39		CB	1.79		A	2.14		A	2.52		A
	19년 이상	165	2.88		A	4.08		A	2.09		C	1.88		A	2.31		A	2.65		A
주거 형태	단독주택	177	2.62		A	4.04		A	2.22		B	1.83		A	2.22		B	2.59		A
	다세대	192	2.43	2.00	B	4.06	0.22	A	2.41	3.66	A	1.85	0.00	A	2.37	2.36	A	2.62	1.19	A
가족 인원	3인 이하	36	2.74		BA	4.00		A	2.49		A	1.94		A	2.35		A	2.70		A
	4인	141	2.27	9.68	C	4.03	0.99	A	2.43	3.77	A	1.84	0.84	A	2.39	0.98	A	2.59	1.94	BA
	5인	112	2.52		BC	4.02		A	2.31		BA	1.79		A	2.19		A	2.57		B
	6인 이상	80	2.88		A	4.15		A	2.05		B	1.87		A	2.27		A	2.64		BA
소득 액	-100만원	127	2.51		A	4.00		A	2.33		BA	1.71	***	C	2.13	***	B	2.54	***	B
	101-150만원	128	2.51	0.33	A	4.09	0.55	A	2.20	3.10	B	1.82	14.9	B	2.29	5.79	B	2.58	7.85	B
	150만원이상	114	2.55		A	4.05		A	2.43		A	2.01		A	2.49		A	2.71		A

DT : Duncan's Grouping 결과

* : 유의수준 $\alpha=0.1$, ** : 유의수준 $\alpha=0.05$, *** : 유의수준 $\alpha=0.01$

나이 가족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취업주부가족이 가족원간의 분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승미(1989)·조성은(199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첫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담화 정도를 보면 첫자녀 나이가 19세이상인 가장 높으며 다음은 0~5세의 자녀를 가진 주부이며 분담화 정도가 낮은 집단은 13~18세 자녀가 있는 경우와 6~12세의 첫자녀를 가진 경우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자녀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가사노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며,

첫자녀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자녀들보다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수를 살펴보면 가족수가 6명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3명인 집단이며 4명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수의 증가가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나 가족수가 4.5인 집단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첫자녀의 나이와 같은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사노동의 계통화

가사노동의 계통화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하위영역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변수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3) 가사노동의 간소화

가사노동 간소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지속년수, 주거형태, 가족수, 총소득등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대졸 집단인 경우 가장 높고 중졸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 간소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간소화시키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도 가사노동간소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부의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간소화의 점수는 낮아지고 있다. 즉, 5년 이하의 집단은 가장 높는데 비하여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단독주택에 비하여 다세대주택이 간소화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수에 따라서도 가사노동 간소화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간소화의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월 총소득에서 150만원이상의 집단이 간소화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101~150만원집단과 소득이 낮은 집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사회화수준은 다른 가사노동 시간전략에 비하여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교육수준, 첫자녀의 나이, 총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재희(1989), 정지영(1990), 조성은(1991)의 결과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첫자녀의 나이가 19세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내고, 13~18세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총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가사노동 사회화가 높게 나타났다. 즉 총소득이 150만원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하여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Strober와 Weinberg(1980), 이재희(1989), 조성은(1991)의 결과와 모두 일치하고 있어 소득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5) 가사노동 기계화

가사노동 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월 총소득에 따라서만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세 집단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성은(1991)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100만원이하 집단, 101~150만원집단, 150만원이상집단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Strober와 Weinberg(1980), 조성은(1991)가 소득이 낮으면 가사노동의 기계화 수준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소득은 기계화를 위한 대체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과 가사노동 시간과의 관계

첫째,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에 관계하는 시간관리 전략은 간소화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간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주부의 경우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표 4.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종속변수	순서	투입변수	회귀계수	부분 R ²	모델 R ²	F	Prob>F
평일 가사 노동 시간	1	간소화	-29.9873	0.0301	0.0301	11.3730	0.0008
	2	사회화	-38.2590	0.0103	0.0404	3.9471	0.0477
	3	계통화	24.4820	0.0081	0.0485	3.1225	0.0781
	4	분담화	-7.1351	0.0013	0.0498	0.4878	0.4853
토요일 가사 노동 시간	1	사회화	-50.2683	0.0203	0.0203	7.6137	0.0061
	2	계통화	29.1976	0.0179	0.0382	6.7947	0.0095
	3	간소화	-20.0787	0.0096	0.0477	3.6625	0.0564
	4	기계화	17.0644	0.0062	0.0539	2.3764	0.1241
	5	분담화	-14.5619	0.0055	0.0594	2.1370	0.1446
일요일 가사 노동 시간	1	간소화	-21.5552	0.0202	0.0202	7.5662	0.0062
	2	계통화	32.8364	0.0141	0.0343	5.3316	0.0215
	3	사회화	-45.4110	0.0136	0.0479	5.2090	0.0230
	4	기계화	13.9322	0.0039	0.0518	1.5102	0.2199
	5	분담화	-9.3811	0.0022	0.0540	0.8530	0.3563
전체 가사 노동 시간	1	간소화	-23.7200	0.0272	0.0272	10.2519	0.0015
	2	사회화	-45.5909	0.0150	0.0422	5.7335	0.0171
	3	계통화	28.5923	0.0147	0.0569	5.7080	0.0174
	4	기계화	12.8517	0.0041	0.0610	1.5828	0.2092
	5	분담화	-10.2914	0.0032	0.0642	1.2549	0.2634

나타났다. 또한 사회화와 분담화 전략 역시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 시간관리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계통화 전략을 실행하는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계통화 전략의 설문문항이 일을 하기 전에 일할 방법을 생각한다는 내용과 일의 병행처리,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일을 실행한다는 내용으로서 설문내용이 가사노동 일거리가 많은 상태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시간관리 전략의 관계는 사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주부의 경우가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 전략이 파출부나 세탁소의 이용이나 외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토요일의 경우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마련하거나 의류를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이용하여 주말을 여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대 가정주부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에 계통화와 기계화 전략을 실행하는 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평일의 가사노동시간과 같이 계통화와 기계화 전략이 가사노동의 직접실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시간관리 전략은 간소화 전략이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화와 분담화 전략이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 시간관리 전략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토요일의 경우는 사회화 전략이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일요일의 경우는 월요일과 연결되는 시점으로서 주부의 경우 가족의 사회활동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반적인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시간관리 전략의 종합적 접근에서는 간소화와 사회화 및 분담화가 가사노동시간의 절약에 관계하고 있고 계통화와 기계화는 가사노동시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화는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Walker(1969)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간의 관계를 알아,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1일 평균 6시간정도로 80년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변수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족수이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이 증가되며 가족수가 감소되는 현재의 추이로 보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첫자녀나이, 월 총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취업이 시간압력요소를 알 수 있다.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하위영역인 가족성원간의 분담화는 주부의 취업여부, 첫자녀나이, 가족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계통화에서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하위영역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변수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부가 가사노동 수행시에는 대부분이 계통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사노동 간소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지속년수, 주거형태, 가족수, 월 총소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간소화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간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학교나 사회에서의 계몽이 요구된다. 가사노동 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월 총소득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계화를 위해서는 높은 소득이 요구되고 가전제품의 활용면에서 교육수준이 주요 요인임을 감안해 볼 때 소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활

용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세째,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은 간소화와 사회화 및 분담화로서 가사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통화와 기계화는 가사노동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통화와 기계화가 많은 일을 수행할 때만이 채택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영숙·심영미(1991).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1-208.
- 2) 김정희(1993).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1.
- 3) 문숙재·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21-143.
- 4) _____·정지영(1991).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 5) _____·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95-112.
- 6) _____·채옥희(1986). 가사노동. 신광출판사.
- 7) 손덕수(1985). 가사노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여성과 일.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47-260.
- 8) 이승미·이기영(1990).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 수행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29-142.
- 9)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2), 103-132.
- 10) 이재희(1991). 도시가정의 가사관련 서비스구매 및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임정빈·임혜경(1992). 1980년대와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1), 261-278.
- 12) 채옥희(1991). 노년기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29.
- 13) 최정화 외 3인(1990). 농촌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98.
- 14)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15) 長津美代子(1991). 共働き夫婦における第一子出生にともなう對處 日本家政學會誌. 42(2). 127-139.
- 16) 長嶋俊介外 5人(1988). 家庭運營の 内發的展開. 東

- 京：昭和堂 136-145.
- 17) Irma H. Gross and E. W. Grandall(1963). 松下英夫外 3人 共譯. 現代 本ム・マネツメンの 原理. 家政教育社 208-210.
- 18) Bellante D., A.C. Foster(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19) Hafstrom, J.L. & V.R. Shram(1983). Housework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 20) Nickell, P., Dorsey. J.M.(1980). Management in Family Living(4th ed.). John Wily & Sons. 124-126.
- 21) Nickols, Sharon Y. & Karen D. Fox(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2.
- 22) Sanik, M.M.(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ion(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175-180.
- 23) Strober M.H. & C.B. Weinberg(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Mar.), 338-347.
- 24) Suzanne M.(1981). Housework by Husbands :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 225-237.
- 25) Walke, K.E. & M.E. Woods(1976). Time use :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26) Wheeler, C.L. & R.P. Arvey(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